



**2021년 / 9월 5주차**

### **연구원 사무국 내부 수선 및 재배치 공사(9월 13일~10월 15일)**

우리 연구원이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으로 이전한 지 올해로 6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연구원과 협약기관인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와 함께 공간을 이용하다 지난 8월부터 연구원 전용으로 공간을 확보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소장하고 있던 도서를 정리하고 기존 공간을 최대한 여유롭게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진행될 이번 공사를 통해 연구원 내 사무국 옆 공간을 회원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무용 가구와 사무기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한 공간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회원 누구나 자유롭게 연구원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상황과 제한된 조건이지만 최대한 계획된 일정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회원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 조선총독부 청사 건립 - 1926. 10. 01



1988년 조선총독부 청사 모습(당시 국립중앙박물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앗아간 일제는 이듬해 2월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초대 통감으로 임명했다. 통감부는 일본 외무성에서 독립된 천황의 직속기관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물론, 정부 각 부서에 다수의 일본인을 고용해 한국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했다.

일제는 1910년 5월 30일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일 병탄(韓日併呑) 작업을 진행했다. 그해 7월 23일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22일 이완용(李完用)과 한일병탄조약을 체결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30일 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를 공포하고 데라우치를 초대 총독으로 임명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남산 왜성대의 일본 공사관을 주 청사로 사용하며 용산구에 자리했던 통감부 건물을 별도로 운영했다. 그러나 직원 수의 증가와 각종 기관의 통괄로 인한 사무량의 확대로 1910~11년에 증축을 거쳤으나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한 상황이라 결국 넓은 청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신청사의 부지로는 행정적으로 편리한 장소를 채택한다는 구실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한국인의 민족적, 역사적, 문화적 심리를 압도할 수 있는 곳을 물색했다. 처음에는 현재의 서울시청 자리 등이 부지로 꼽혔었지만 당시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결국 경복궁으로 위치가 정해졌다. 1912년에 경복궁에 조선총독부 청사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흥례문과 주위의 행각, 영제교 등이 철거되기 시작한다. 1914년에는 이듬해에 조선물산공진회를 경복궁에서 개최한다는 핑계로 경복궁의 중요 전각 몇 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각들이 헐어버렸다.

1912년 독일인 건축가 게오르그 데 라란데(Georg de Lalande)가 설계에 착수했으나 1914년 기초 설계만 남기고 사망한 후 일본인 건축가 노무라 이치로, 구니에다 히로시 등이 설계를 완성했다. 건물은 르네상스 양식에 바로크 양식을 절충한 네오 르네상스 양식으로 설계되었다. 조선에서 3번째로 9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으며, 당시에는 최신 기법이었던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철근은 일본 기타큐슈와 오사카에서 공수해왔다.

경복궁의 입구 역할을 하던 광화문은 조선총독부 건물 완공과 때를 같이 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당초 광화문을 헐고자했던 일제는 민인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경복궁 동쪽문인 건춘문의 북쪽으로 광화문을 옮겼다. 광화문을 옮긴 후 그 자리를 '총독부 광장'이라 부르면서 각종 옥외 행사를 진행했다. 해방 이후에도 이곳은 1968년 광화문이 복원될 때까지 군정청 광장, 중앙청 광장 등 이름만 달리하며 여러 관제행사의 개최 장소가 된다.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한 후 1945년 9월 9일에 서울에 주둔한 미합중국 육군이 총독부 청사를 미군정청 청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에 총독부 청사의 제1회의실에서 미 육군 제24군단장 존 하지 육군 중장과 조선총독 아베 일본 육군 대장의 항복 문서 서명식이 있었다.

이후 미군정에 의해 조선총독부 청사는 캐피탈 홀(Capital Hall)이라 불리게 되었다. 중앙청(中央廳)이란 이름은 당시 학자였던 정인보(鄭寅普)가 캐피탈 홀을 직역하여 지은 것이다. 1948년 5월 10일에 중앙청 중앙홀에서 헌법 제정을 위한 역사적인 제헌 국회를 개회했고 그해 7월 17일 1층의 메인 홀에서 헌법공포식을 열고 헌법을 공포했다. 1948년 8월 15일에는 청사 앞뜰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이 거행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1.4후퇴 후 서울을 재수복한 후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논의가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되었으나 전쟁 시기 모든 물자를 미국에 원조하고 있던 형편에서 철거할 능력도 철거된 건물의 잔해를 치울 능력도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없던 일이 되었다. 2공화국에는 공식청사로 사용되지 않다가 1962년 재개관되어 사용되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불붙은 철거논의는 1995년 3월 1일 오전 10시, 구 조선총독부 앞 광장에서 '광복 50주년 3.1절 기념 문화축제'를 열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옛 총독부 건물을 헐어낸다고 선포했다

1995년 8월 15일 광복절 오전 9시, 옛 총독부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장에서 중앙돔 침탑 분리에 앞서 주돈식 문화체육부 장관은 해방 50년 만에 이뤄지는 일제 상징의 제거를 호국영령들에게 고하는 고유문을 낭독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 민족의 언어와 역사를 말살하고 겨레의 생존까지 박탈했던 식민정책의 본산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여 암울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 통일과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정궁 복원작업과 새 문화거리 건설을 오늘부터 시작함을 엄숙히 고합니다.”**